

「한국관광학회 고문 회고록」:
관광학계의 역량강화와 위상정립에 관한 小考

鄭 義 琓

제 18대 회장

Jeong, Eui-Seon

I. 서 언

한국관광학회가 1972년 설립된 이래 37년의 긴 연혁 속에서 제18대 학회는 2005. 9. 1부터 2007. 8. 31까지의 기간이었다. 그동안 한국관광학회의 학술심포지엄위원장(제15대 및 제16대 학회, 임기 4년), 학술편집부위원장 겸 산하 관광자원개발학회의 편집위원장(임기 2년)과 관광자원개발학회 제2대 회장(임기 2년) 및 한국관광학회 수석부회장(임기 2년)으로 10여 년에 걸쳐 학회를 지원하는 임원활동을 해 왔다. 이어서 제18대 학회를 직접 이끄는 견인자로서 무거운 직책이 현실로 다가오니 역대 학회장을 역임하신 학회 고문들께서 이룩해온 업적을 어떻게 하면 잘 발전 승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그 당시 앞섰었다. 그동안 역대 학회에서는 회원들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관광학의 학문적 뿌리를 키우는데 이바지 해왔으므로 관광학의 학문적 체계와 연구수준을 높이는 데 가속도를 부쳐 나가고, 산학관의 협력관계에서도 학계의 역량과 위상정립을 강화해야할 때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제18대 학회는 관광학계의 역량강화와 위상정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① 학회의 정관을 준수한다는 기본방향하에 논문게재 기회 확대와 등재 학술지 및 A급 학술지로 유지 발전, ② 관광정책포럼을 통한 정책적 멘토(Political Mentor)로서의 역할 수행과 국제학술심포지엄 및 연구논문 발표대회의 체계적인 개최, ③ 학회다운 학회로서의 권위와 품위유지, ④ 이전보다도 더 많은 학회의 발전기금 확보 등을 세부 지침으로 하여 첫 발을 내딛었다(한국관광학회보 제74호, 2005. 7). 이와 같은 슬로건으로 출범한 18대 학회의 활동에 관한 회고를 하고자 한

다.

II. 학계의 역량강화와 위상정립 활동

1. 학회정관 개정과 학술지의 발전

첫째, 정관개정: 학회의 기틀을 유지해야 할 학회정관은 그동안 학회장이 바뀔 때마다 잦은 변경을 가져와 불합리하게 구성되어 있고,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표준정관』의 틀에서도 부분적으로 벗어나 있는 점이 발견되어 제10차 개정(2007. 7. 4)을 통하여 체계화시켜 제19대 학회에선 개정 없이 이어져 현재까지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제18대 학회에서의 기존의 제9차 정관은, ①문장표현의 부적절[예: 이사 80인(줄일 수도 있음), 부회장 15인 이내(2003. 8)], ②제25조의 번호누락으로 24조에 이어서 26조로 기술, ③주요 대강만을 명시한다는 관행을 벗어나 세부사항까지 적시(예: 분과학회 설립 절차 및 분과학회의 모학회 분담금 납입의무, 상임재정 운용 고문조항의 도입, 편집위원장의 임명절차 등), ④이사(각 위원회의 위원 포함)의 구분 모호로 이사회 의결정족수 파악 불가 등의 불합리성이 발견되어 학회운영상 정관을 준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제18대 학회에서는 정관개정위원장(김사헌 고문)을 임명하고, 위원장께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표준정관』의 틀에 부합하도록 개정·보완의 필요성에 관하여 진언을 드렸다. 이에 따라 개정·보완된 정관을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현재 제10차 개정에 이르러 있다(2008 한국관광학회 회원명부: 167-178).

둘째, 학술지의 증편: 학술지인 『관광학연구』를 2007년부터 격월간으로 년 6회 증편함으로써 논문게재에 있어서 더 많은 수용력이 확보되었다. 특히 종전의 『관광학연구』가 6월호를 각권 제1호로 발간하면서 혼란을 초래해 왔는데 매년 첫 출간되는 2월호부터 각권의 제1호로 순서를 체계화하여 발행하고, 이러한 체계를 다음 학회에 이양함으로써 현재까지 그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연간 6회(2, 4, 6, 8, 10, 12) 발행되는 학술지 중 6월과 10월호는 분과학회 주관의 특별호로 발간하게 함으로써 연간 약 100여 편 이상의 게재논문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종전에 비하여 연간 약 30편 이상의 옥고를 추가적으로 게재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학술지의 최우수 등급유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등재학술지 평가와는

별도로 2002년도엔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학술지를 A급, B급, C등급으로 평가하는 사업을 병행하였는데, 이 사업 중에는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리학과 관광학의 두 학문 분야 학술지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상호 비교분석 평가한 결과 A등급 판정을 받는 쾌거를 이룩함으로써(편집위원장 한범수 교수), 2년 마다 재심사 받게 되는 등재학술지 평가의 심사를 1회 면제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8대 학회는 4년(2006. 12)만에 받게 된 등재학술지 평가에서 94점으로 적격 판정을 받음으로써 등재학술지로서 최우수 등급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넷째, 관광학술상 수여: 따라서 학술지 증편에 이어 등재학술지 등급유지 및 최우수 학회지로 거듭난 것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관광학술상 심사 소위원회(위원장: 변우희 학술편집위원장)에 의뢰하여 임기 내에 『관광학연구』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심사선정하여 제62차 정기총회에서 <표 1>과 같이 『최우수 관광학술상 1편과 우수 관광학술상 2편』을 각각 수상자로 선정하여 수여하였다. 또한 제18대 학회 중에 발간된 『관광학연구』 지의 논문심사에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심사를 통하여 게재논문의 질을 격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심사자를 최우수 및 우수 학술논문 심사상의 수상자로 선정하여 수여하기도 하였다.

<표 1> 최우수 및 우수 관광학술상 및 논문 심사상 수여 현황

최우수 관광학술상	김남조(한양대 교수)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관광지 수용력 적용모형 개발연구
우수 관광학술상	한경수(계명문화대 교수)	한국의 근대 전환기 관광(1880~1940)
우수 관광학술상	김수영(세종사이버대 교수)	다변량 판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인공신경망 분석을 이용한 호텔 도산 예측
학술논문 심사상	정 유 경(세종대 교수)	최우수 학술논문 심사상
	민 창 기(거제대 교수)	우수 학술논문 심사상
	전 병 길(동국대학 교수)	우수 학술논문 심사상

2. 정책적 멘토 역할과 학술대회의 체계화

첫째, 정책포럼 개최와 제18대 학회 출범: 18대 학회는 학회업무의 인수인계의 지연으로 9월 17일에야 인수인계가 이루어짐으로써 보름이상 학회업무의 공백상태를 가져오는 있을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겼다. 그러나 대구컨벤션센터(EXCO)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관광의 역할』이란 주제의 관광정책포럼(2005. 10. 8)은 제18

대 학회의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행사로서 학회의 정책적 멘토로서의 역할과 위상 제고라는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서의 관광정책포럼은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와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관광의 역할과 과제를 탐색해 볼 목적으로 개최되었는데, 본 행사에서는 약 300여명의 학회 회원과 대학생 80여명(경주대 변우희 교수 인솔)이 참석한 가운데 매우 체계적인 행사를 기획·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이 행사와 함께 역대 학회장을 역임하신 고문님(안종윤, 손해식, 김상무, 김사현 고문)들이 배석한 가운데 임원진 임명장 수여와 이어지는 만찬식(株, HTC 김근중 사장 재정지원)을 성황리에 거행하였다. 이에 따라 후원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행사에 참여한 타 학회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짜임새가 돋보이는 포럼이었다는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둘째, 정책적 멘토 역할: 학회의 인수와 더불어 9월 18일은 한국관광학회 제18대 회장으로서는 한국관광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임명되어(기획예산처장관), 관광공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임기 3년간에 걸쳐 참여하게 됨으로써 학계와 공사간의 직간접적인 연관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해 질 수 있었다. 또한 문화관광연구원의 비상임이사(2005. 12. 4~2008. 12. 3)와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운영위원(2006. 5~2008. 5), 한국일반여행업협회의 여행불편처리위원회(2006. 6. 29~2007. 6. 29)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정책적 멘토로서의 전후방연관관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셋째, 평양방문과 남북관광 정책포럼 개최: 이러한 계기는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2005년 10월 22일~2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남북교류협력 확대차원에서 관광산업계, 관광학계,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평양방문 계획 구상에, 관광학계의 대표로서 학회회원들의 참여를 권유한 바 <표 2>의 회원들이 참여의사를 밝혀 왔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에서 평양 순안공항까지 직항로를 이용하여 도착한 후 미지의 세계, 역사적인 평양 및 묘향산 관광 길에 오르게 된 것이다.

<표 2> 학계 대표의 평양방문단

정의선 회장(강릉대 교수)	조명환 수석부회장(동아대 교수)
김민주 부회장(경기대 교수)	김경숙 사무국장(강릉대 교수)
김상태 부회장(한관연 실장)	윤세환 부회장(안산공대 교수)
김성섭 이사(세종대 교수)	이진환 이사(삼척시청)

특히 ①평양 양각도 호텔과 묘향산 향산호텔에서의 숙박, ②옥류관과 평양단고

기에서의 북한음식의 시식 및 체험, ③만경대 및 주체사상탑 견학, ④아리랑 공연 및 학생소년문화공연 공연관람, ⑤가장 오래된 사찰로 일컬어지는 보현사 절터답사와 묘향산 등반, ⑥인민대학습당, 역사박물관, 동명왕릉 답사 등 회소성 있는 많은 관광자원들을 둘러볼 수 있었던 것은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로 되새겨지고 있다. 학회 임원진의 평양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약 한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한국관광공사(주최)와 한국관광학회 및 북한경제전문가 100인포럼의 공동 주관으로 <표 3>과 같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안내전시관(TIC)에서 『관광진흥에서 보는 남북협력, 남북협력에서 보는 관광진흥』 등 관광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2005. 11. 30).

〈표 3〉 제18대 학회의 관광정책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현황, 2005-2007

개최연도 (회수)	개최장소	대회 주제 / 발표논문 편수	비고
2005. 10	대구 컨벤션센터	국가균형발전과 관광의 역할	
2005. 11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전시관	관광진흥에서 보는 남북협력, 남북협력에서 보는 관광진흥	
2006. 9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	로그인 투어리즘 2006	국제대회
2006. 11	일산 킨텍스	경기도 한국관광의 중심지, 그 가능성과 대안	
2007. 9	JW메리어트 호텔	로그인 투어리즘 2007	국제대회
2006. 2 (59차)	전남 목포시 신안비치호텔	지역관광개발과 관광레저 기업도시 조성방향	
2006. 7 (60차)	강원 평창군 용평리조트	레저스포츠와 관광: 한국관광의 새동력	국제대회
2007. 2 (61차)	서울 세종대학교	호스피털리티와 프랜차이즈	
2007. 7 (62차)	인천 하얏트리젠시	동북아의 허브, 인천: 한반도의 신성장동력과 관광산업	국제대회

넷째, 국제관광 포럼 『로그인 투어리즘 2006』 개최: 2006년 9월 8일부터 9일까지는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국제관광 포럼행사인 『로그인 투어리즘 2006』을 개최하여 약 750여명에 달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로 IT와 관광의 접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내용면에서 큰 성공을 거둔 행사였다는 평가를 자아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6일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경기관광공사와 산학협약체결 및 『경기도 한국관광의 중심지, 그 가능성과 대안』이란 주제로 제7회

관광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한국관광학회의 행사추진 기획력과 체계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던 국제관광 포럼행사인 『로그인 투어리즘 2007』을 2007년에도 9월 14일(금)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할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학회의 연차적 이관사업으로 인계하여 지속화 하고 있다.

다섯째, 학술대회의 체계화와 위상정립: 한국관광학회 산하 관광자원개발학회(제4대 이장주 회장) 주관으로 『지역관광개발과 관광레저 기업도시 조성방향』이란 주제로 목포에서 개최한 제59차 학술대회와, 정기학술대회로서 『레저스포츠와 관광: 한국관광의 새동력』이란 주제로 용평에서 개최한 제60차 국제학술대회 그리고 산하 호텔외식경영학회(제2대 차석빈 회장) 주관으로 『호스피털리티와 프랜차이즈』이란 주제로 세종대학교에서 개최한 제61차 학술대회는 모두 질적·양적으로 대성황을 이룬 행사였다. 또한 제62차 국제관광학술대회는 인천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동북아의 허브, 인천: 한반도의 신성장동력과 관광산업』이라는 주제로 2007년 7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되었다(고재운 부회장 겸 학술심포지엄위원장). 특히 약 1,000여명의 학회회원과 외국학자 및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문 및 국문으로 소개되는 영상화면과 함께 매우 짜임새 있게 진행된 개회식 행사에 대하여 참석한 내빈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음으로써 한국관광학회의 위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제60차와 제62차 국제관광학술대회의 개최는 서울 광화문 광장의 옥외 전광판을 이용하여 널리 홍보함으로써 관광학회의 위상정립과 저변확산에 크게 이바지한 일이 아닌가도 회상해 본다. 서울 광화문 광장의 전광판을 이용하여 2014평창 동계올림픽 공식후보도시 선정과 관련, 「레저스포츠와 관광: 한국관광의 새 동력」이라는 주제로 2006강원 국제관광학술대회겸 한국관광학회 제60차 학술심포지엄 및 연구논문 발표대회 개최를 6월 23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였다.

서울 광화문 광장의 전광판을 이용하여 『동북아의 허브, 인천 : 한반도의 신성장동력과 관광산업』이라는 주제로 2007인천 국제관광 학술대회겸 한국관광학회 제62차 학술심포지엄 및 연구논문 발표대회 개최를 6월 18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였다.

3. 학회의 권위와 한국관광진흥 및 기업경영 대상수여

첫째, 한국관광진흥대상 및 기업경영대상 수여와 학회의 권위: 제18대 학회에서는 학회다운 학회로서의 권위와 품위유지 및 위상정립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술대회의 개회식에서는 우리학회의 『한국관광진흥정책 및 관광기업경영 평가지침』(제15대 학회시 김규호 부회장 제정)에 의거하여 2006년 제60차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관광진흥대상에 김종민 한국관광공사 사장(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2007년 제61차에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현 대한민국 대통령)을 한국관광진흥대상의 수상자로, 그리고 박상환 (주)하나투어 대표이사과 심재혁 (주)레드캡투어 대표이사를 관광기업경영대상의 수상자로 각각 선정하여 이를 기리기 위해 전체 1,500여 회원의 뜻을 담아 상패를 드린 것은 산학관의 유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매우 의미있는 일로 회상한다. 그리고 제62차에서는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한국관광진흥대상을 그리고 (주)HTC의 김근중 사장에게 관광기업경영대상을 드리게 된 것도 큰 기쁨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학회의 위상정립과 더불어 2006년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7박 8일간에 걸쳐 관광학계의 대표(한국관광학회 회장)로서 독일 월드컵 개최에 따른 해외 관광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독일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등을 방문하여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활동을 펼쳤으며, 2007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에는 한국관광공사와 (주)현대아산 초청으로 금강산 온정각 면세점 개점식과 내금강 시범관광에 참여함으로써,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의 역할과 남북관광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갖게 됨은 물론 학회의 권위 및 품위 유지와 관련하여 매우 가치있는 일로 회고되고 있다.

둘째, 관광활성화를 위한 테마관광 팸투어 활동: 2006년 12월 19일부터 1박 2일간은 경상북도 초청으로 『2007경북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경북관광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역대 회장을 역임하셨던 고문님 네 분(안중윤 고문, 신현주 고문, 손해식 고문, 김상무 고문)과 1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북도청에서 제공한 전세 버스를 이용하여 경북테마관광 팸투어를 실시하게 되었다(한국관광학회보 제79호, 2007. 1. 1).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관광인프라의 미흡과 기대를 모았던 한류열풍이 점차 저조해짐에 따라 인·아웃바운드 간의 극심한 역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 대한 대안의 일환으로서 학회와 자치단체가 고심한 끝에 한국관광을 선도할 『경북테마관광 상품개발』이라는 발상으로 학회 차원에서는 처음 시도해 본 팸투어 행사였다.

이어서 2007년 7월 4일에는 인천관광공사(최재근 사장) 후원으로 제62차 학술대회 행사의 부대행사로, 윤세환 부회장과 김경숙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2박 3일간(1박 2일에서 기상악화로 귀환이 어려워 연장됨) 사전답사를 통하여 점검하도록 한 후, 제18대 학회의 마지막 사업으로 학회 고문님과 임원들을 모시고 매우 희소가치가 있는 백령도 투어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백령도 투어를 위하여 유람선 선착장에서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순간 우천, 해무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출항이 어려워져 인천도심권 관광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①차이나타운, ②일본제1은행, ③인천상륙작전기념관, ④대불호텔 부지(1888년 건립), ⑤자유공원 등을 대체 관람함으로써, 이 또한 역사문화와 인천관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틀을 넓혀 줄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투어로 생각되고 있다.

셋째, 대학생 국제교류와 대학원생 연구논문 발표 활성화 : <표 4>와 같이 문화관광부(주최), 한국관광공사(주관), 한국관광학회(운영)가 공동으로 2006년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 청년시장과의 교류 촉진과 문화적 이해를 도모할 목적으로 전국 20여개 대학이 참여하여 추진된 『한일 대학생 필드트립 교류회와 그 결과 보고회』는 관광학 관련 대학생들로 하여금 학술단체로서 한국관광학회의 역할과 위상을 깨닫게 하고, 전문가그룹의 역할을 느끼게 하는 가치있는 행사로 자부심을 갖는다.

<표 4> 한일 필드트립 교류 참가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일본방문경험
인솔자	이하영	문화관광부 국제관광과 주무	○
인솔자	설경희	한국관광공사 일본팀 과장	○
인솔자	김경숙	한국관광학회 사무국장(강릉대 교수)	○
인솔자	윤세환	한국관광학회 부회장(안산공대 교수)	○
1	김꽃샘	대구가톨릭대 관광학과 3학년	×
2	김민관	용인대 관광학과 4학년	×
3	김성진	동아대 관광경영학전공 3학년	×
4	라진석	세명대 외식경영학과 3학년	×
5	류은혜	호남대 호텔경영학과 3학년	×
6	박세웅	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과 3학년	×
7	박정은	동의대 호텔컨벤션경영 3학년	×
8	박혜진	대구대 관광학부 4학년	○
9	변형은	한양대 관광학부 3학년	×
10	윤성서	강릉대 관광경영학과 3학년	×

11	이수만	경주대	관광경영학전공	4학년	×
12	이의희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4학년	○
13	이정수	경기대	관광개발학과	4학년	○
14	이충욱	계명대	관광경영학과	4학년	×
15	정병인	강원대	관광경영학과	3학년	×
16	정의룡	청운대	호텔관광경영학부	3학년	×
17	차용우	목포대	관광경영학전공	3학년	○
18	최유리	경희대	외식산업학과	3학년	○
19	태재원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3학년	○
20	한은영	부경대	관광경영학전공	4학년	○

이러한 교류회는 제18대 학회가 막을 내린 다음에도 일본학생들이 국내대학생들과의 교류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한일 대학생 필드트립 교류회』가 열림으로써(2007. 9. 3~8), 이 또한 다음 학회의 지속적 이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 필드트립 교류회 및 그 결과 보고회는, 거슬러 올라가면 제52차 부여학술대회(제16대 김상무 회장)때부터 도입된 대학생 제안 발표대회를 통하여 관광관련 전공학과 학생들의 관점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관광산업 분야의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꿈과 도전의식을 심어 준 것이 외국학생들과의 교류 및 보고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학원생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관광학술대회의 부대행사로써 대학원생들의 학술적 연구능력을 배양하고, 관광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용한 연구논문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학술적 연구에 관한 동기유발과 관여도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운영해 왔다. 따라서 제60차 강원 국제관광학술대회와 제62차 인천 국제관광학술대회에서는 각각 약 500여명의 대학 및 대학원생이 참가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대학원생과 대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학문적으로 인도해 준 회원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하고자 한다.

4. 학회 발전기금 확보와 사무국 이전

첫째, 학회의 발전기금 확보: 제18대 학회에서는 이전보다도 더 많은 학회의 발전기금 확보 등을 다짐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술대회 개최시 마다 관계 및 업계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대하여 재정지원 요청과 확보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①약 1,000여 회원이 참여한 학술대회 개최 및 발표논문집 발간, ②학술지인 관광학연구

지의 종전의 년 4회 발간에서 6회(2, 4, 6, 8, 10, 12)로 증편 발간, ③년 4회(1, 4, 7, 10) 뉴스레터 발행, ④각종 회의개최와 관련된 소정의 회의비 지출, ⑤조교 인건비, ⑥학회 고문 및 임원진 중심의 송년회(잠실 롯데호텔 2층 베네치아, 2005. 12. 18) 및 신년 교례회(호텔인터콘티넨탈 코엑스 아시안 레스토랑, 2007. 1. 8), ⑦추천위원 회 위원임명과 회의소집, ⑧한국관광공사 10층으로 학회 사무국의 이전에 따른 책장 제작 등 제 소요비용을 공제하고 <표 5>와 같이 약 6천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이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18대 학회의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철두철미한 회계검사와 재정운용의 효율적 집행에 관하여 과찬의 평가를 해준 한범수 감사, 이돈재 감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둘째, 학회사무국의 역할과 이전: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더불어 업계, 관계, 정계를 망라한 많은 분들과 협력체계를 굳건히 강화하고, 우리학회의 1,500여 회원과 관계기관 등과 관련하여 현격히 늘어나고 있는 학회 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의 협조를 얻어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의 사무국을 대방동에서 한국관광공사 10층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동안 학회의 알뜰한 살림살이로 발전기금 확보와 학회사무국 총괄에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국제학술대회 등으로 빚어진 방대한 규모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결산하여 관계기관에 보고하느라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온 김경숙 사무국장(강릉 원주대 교수)과 정기학술대회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경품권추첨 행사를 비롯하여 환영·환송 만찬행사를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잘 진행한 최웅 총무이사(강릉 원주대 교수)의 노고도 한국관광학회의 위상제고에 피할 수 없는 업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표 5> 제18대 학회의 재정인수 및 인계 현황

제18대 학회의 인수금	제18대 학회의 잔고 및 이월금
116,130,286원	175,322,895원

주: 한국관광학회보 제74호(2005. 10. 1)에서는 2005. 9. 17일 현재 118,414,819원으로 잔고잔액이 명시되어 있으나, 2005. 10. 31 현재 전 학회의 미지급금(전 조교월급, 임대료 및 관리비, 법인세 등)이 발생함으로써 이를 공제하면 인수금은 상기금액임.

셋째, 학회조교의 상시근무 체계 확립: 학회 사무국에서 늘 혼자 근무하고 있는 조교는 개인의 장래 발전을 위한 학문 및 외국어 연마의 필요성과 사생활 등을 희생해 가면서 과중한 업무처리에 지친 나머지 조교직의 사임에 따른 잦은 교체로 이어져 학회업무의 공백 및 업무과약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으로 노출되어 왔다. 이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18대 학회에서는 조교의 임기 준수와 공휴일만 제외하고 근무하는 상시업무체제로 시스템을 전환하려고 노력해 보았다. 따라서 강원도 삼척 시골마을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거처가 불분명한 김상태(학회장의 제자) 군을 조교로 임명하여, 강남구청역 인근지역의 고시원에 투숙시켜 생활하게 하면서 가끔 삼겹살과 소주, 생맥주 및 막걸리로 격려해주면서 상시근무 하도록 권유하였다. 업계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소정의 지원을 받아 약간의 보상혜택은 제공했지만 학회 발전기금 확보라는 취약한 명분 때문에 학회 조교의 낮은 보수와 열악한 생활환경을 감안하면 너무나 혹사시킨 것이 아닌가 후회해 본다. 늘 희생을 감수하면서 토요일까지도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몸에 배어있는 성실함을 보여 준 점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Ⅲ. 결 어

이상과 같이 제18대 학회(2005. 9. 1 ~ 2007. 8. 31)는 역대 회장을 역임하신 고문님, 임원진 및 회원, 조교, 관계, 업계 등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갈을 수 없는 빗더미에 쌓여있다. 그동안 학회발전에 협력해 주신 임원 및 회원 여러분과 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기대 및 성원에 부합하기 위하여, 한국관광학회 제62차 정기총회(2007. 7. 4)에서는 <표 6>과 같이 공로패를 증정하고, 7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3박 4일 일정으로 여행경비의 50%에 해당하는 재원을 업계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윤세환 학술이벤트위원장의 계획 하에 중국 청도, 연태를 방문하여 여행을 즐기고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인센티브 투어를 실시하였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진기하고 아름다운 자연풍경 관상으로 정신적 위안을 얻은 후, 연태공항을 통하여 귀국하려는 순간 갑자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인하여 탑승하려는 항공기(아시아나항공)가 착륙하지 못하고 인천공항으로 회항함으로써 1박 연장과 함께 그 다음날 장시간에 걸쳐 육로로 이동, 위해공항을 이용하여 귀국하게 된 여정은 잊을 수 없는 또 한 가지의 스토리텔링이 되고 있다.

<표 6> 제18대 학회의 공로패 증정 현황

공 로 패	변우희 편집위원장(경주대 교수)	고재윤 학술심로지엄위원장(경희대 교수)
	김상태 정책포럼위원장(한관연 정책실장)	오익근 국제협력위원장(계명대 교수)
	이희찬 산학협력위원장(세종대 교수)	김철원 영문편집위원장(경희대 교수)
	윤세환 학술이벤트위원장(안산공대 교수)	최재근 인천관광공사 사장
	김민주 학술출판위원장(경기대 교수)	박기석 (주)시공테크 대표이사
	김경숙 사무국장(강릉대 교수)	장현우 (주)하이파개발 대표이사
인 센 티 브	최 웅 사무국 총무이사(강릉대 교수)	이상대 (주)디파트너스 대표이사
	정의선 회장(강릉대 교수)	조명환 수석부회장(동아대 교수)
	이돈재 감사(용인대 교수)	고재윤 학술심포지엄 위원장(경희대 교수)
	변우희 편집위원장(경주대 교수)	오익근 국제협력위원장(계명대 교수)
	김규호 분과학회장(경주대 교수)	윤세환 학술이벤트위원장(안산공대 교수)
	김경숙 사무국장(강릉대 교수)	최 웅 총무이사(강릉대 교수)

학회 출범시의 원만하지 못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18대 학회에서 행사 때 마다 학자적 권위를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고, 또 참여자로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여러분,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학회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분에 넘치는 평가를 하여 주신 점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학회 사랑에 대한 더욱더 많은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립니다.